

서울지역종친회 복다림 행사 개최



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에서는 8월 11일 1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우가촌에서 안동권문의 어르신들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다림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권승구 명예회장 내외, 권순희 사무국장 내외, 권영복 회장의 큰딸을 비롯해 몇 분의 여성 회원들도 참석해 복다림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권영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더운 날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말복이 내일 모례인데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이나 한끼 하자고 불렀다. 권승구 명예회장님, 권정섭 전 회장님, 권정찬 산악회장, 대종회 권오상 사무총장님, 권행완 편집국장, 권기모 총무국장 등 여러분께서 오셔서 감사하다. 맛있게 드시고 덕담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승구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사람의 몸은 넘쳐도 탈, 부족해도 탈이 난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기모 총무국장은 “만나 뵈서 반갑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유서 깊은 서울지역종친회 복다림 행사에 참석해서 영광입니다.

권영창 회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방문



권기윤 안동시의원, 권오상 사무국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박성만 의장, 권영창 회장, 권중근 피종회장 협회 회장, 권오상 사무총장(원쪽부터)

권영창 회장은 8월 5일 11시 권중근 파종회장과 권기수 별장공파회장에게 예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종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때로는 웃자지껄하게,

때로는 덕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권기윤 선생은 한국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때 안동권문도 과거의 양반에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취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권영복 회장은 어르신들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봇으로 직접 오죽선(烏竹扇)이라고 쓴 부채를 선물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씨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 서후면 국가유산 성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성지 조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취임 고유례 봉행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원이 제9대 삼척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고 삼척향교 대성전에서 취임 고유례를 봉행했다. 권정복 의장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하며,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권정복 의장은 삼척시의회 3선(7대, 8대, 9대) 의원이다. 제7대 삼척시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24차 격월제 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주연) 제24차(次) 격월제 회의가 7월 26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평화9길 46-13(평화동) '한정식 청운'에서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주연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호 두 고문,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 권정호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영간 전 부회장공파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10명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두 달 가운데 허수 달에 만나는 이번 격월제 모임에서 회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이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자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도 했다.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은 “지난 7월

16일 안동시청 낙동홀에서 열린 ‘조선읍지 영가지(永嘉誌)와 용만(龍巒) 권기(權紀) 선생에 관한 제31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때 안동권씨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오는 가을 한국국학진흥원 권진호 박사가 영가지에 관하여 또 다시 상세히 강의할 계획으로 있으니 그때 많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건배를 하면서 “앞으로 안동

권문이 어는 문중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권기원 편집국장

권중숙 작가는 2023년 대전뿌리공원

에서 주최한 제1회 사회공모전에서 안동

권문의 대표작가로 ‘병산대첩’을 출품하여 우수 작품으로 입선한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동정

▲ 권기섭(55)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취임했다. 권 위원장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 근무한 정책 전문가다. 권 위원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1개월간 차관을 역임했다.

▲ 권유정 글로벌 식품 기업 제너럴밀스 코리아 대표가 8월 1일 취임했다. 권 신임 대표는 네슬레코리아, 코카콜라코리아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거치며 20년 이상 마케팅 전략 및 실행을 담당해온 마케팅 전문가로 마케팅 종합을 담당해 왔다. 권유정 신임 대표는 임직원 성장 위한 기업문화 조성, 소비자 접점 확대 및 경험 확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너럴밀스코리아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 테이블오더 기업(주)티오더 권성택 대표가 벤처기업협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벤처기업협회 소속 회원사는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 AI 인프라 기업 티오더는 2019년 1월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해 누적 태블릿 판매 대수 20만대 달성을 기록해온 5조 원 돌파를 기록하며 테이블오더 업계 점유율 1위 서비스업체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 권순천씨가 지난 8월 3일 영월 서부시장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로 영월소방서장 유공 표장을 받았다. 권순천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12분께 서부시장 내 한 점포 외부 좌판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초로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한 후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여 차지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사고를 예방했다. 권순천씨는 화재가 난 식당 인근에서 ‘서민촌’이라는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훈 영월소방서장은 지난 6일 권씨와 자녀들을 소방서로 초청해 표장을 전달했다.

▲ 권은진 진바비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소아당뇨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문화체육위원회(장관급 표장)를 수상했다. 권 대표는 이날 제1형 당뇨병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취지로 자선 패션쇼 이벤트를 마련했다.

권 대표는 슈퍼모델로 활동할 때부터 연탄 기부, 심장병 어린이 돋기, 유기견 봉사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모델로 알려져 있다.

▲ 권기탁 정관일신기독병원 원장이 지난 1월 25일 취임했다. 권기탁 병원장은 경북대 의과대학 졸업, 고신대 의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수영한서병원 과장을 시작으로 기장병원 병원장, 한서재활병원 병원장, 세영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관일신기독병원은 관절척추센터, 외과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뇌신경센터, 건강점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권수진 경남한국춤보존회 대표가 제17회 세계인날을 맞아 7월 28일 부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3회 대한민국민족문화예술대상식에서 한국무용인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권오영(35세, 주밀공파) 행정학 박사가 2024년 한남대학교 교원 초빙에 응모한 결과 최종 합격하여 9월 1일자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권오영 교수는 주밀공과 정현공계 죄운공 후손이다. 부친 권희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정년 퇴임했다. 재임시 공과대학 학장, 기획연구회처장 등을 역임했다. 충주에서 14대째 세거하고 있다.



100만 족친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종회장 권영창 외 임직원 일동

